

40 國土建設年鑑(1961) 국토건설연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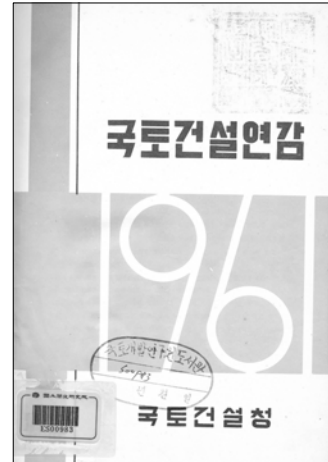
1962년 / 국토건설청 / 332면 / 04.40-07 국885국 1962

1962년 4월에 당시 국토건설청(경제기획원의 청)이 발간한 연감이다. 통계숫자는 1961년 말 기준으로 되어 있다. 이 자료는 국토건설에 관해서는 최초의 연감인데 「내무행정치적사」의 토목부문과 연결을 지으면 해방 후부터의 통계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국토건설청은 몇 달 후 건설부로 개편되는데 이때 국토건설청의 기구는 대단히 흥미로운 것이 많다. 국토계획국의 설치는 물론 수자원국의 설치도 일본보다 앞선 조치였다. 지방 국토건설국도 종래 서울, 부산, 이리(지금의 익산)의 3개 국 외에 시대적 요청에 따라 태백산지역 국토건설국이 설치된 것도 펍 이채롭다.

이 연감에서는 5·16 혁명 이전, 즉 4·19 혁명 직후 당시 민주당 정부에 의해 추진되었던 국토개발사업이 5·16 후 혁명정부에 의해 어떻게 승계되었는가 하는 것을 소상히 설명하고 있다. 당시 400억 환(圓)의 예산으로 정치적 생명을 걸었다고 호언하면서 작성한 국토개발사업의 계획 자체는 1960년 가을부터 1961년 2월 말까지였고 시행은 3월 1일이었다. 그런데 5월에 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또한 연감에는 1959년~1961년 간의 주요 10개 도시 일용근로자(목공, 미장이, 석공 등 10개 종목)의 노임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1961년 말 현재 건설업체 수는 토목 126



개 업체, 건축 154개 업체였다.

이 연감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과실수의 반(反)당 본수(本數)를 사과 20본, 배 30본, 복숭아 40본, 감 33본, 포도 50본과 같은 식으로 기록하고 있다. 주택건설통계는 1951년~1960년까지의 건설통계가 실려 있는데 연평균 2만 5천 세대의 주택을 건설했다.

